

부산거주 취업주부의 가족생활에 관한 실태조사*

Family Life of Dual Earner Wives in Pusan

부산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기숙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Women's Univ.

Professor: Ki Sook Lee

〈목 차〉

I. 들어가면서	IV. 조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맺는말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overall attitudes of family life used data from dual-earner wives (N=773) who contribute to household economics.

The major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employed wives are more likely to be equal in performing their roles at home than full-time homemakers. However, a pattern of asymmetry exists concerning the role performance of wives regardless of their employment

The specific findings are as follows :

- (1) Wives indicate the instrumental and the dual (mixed the traditional value with the developmental value) perceptions of marriage.
- (2) It is not equal in the distribution of family resources and the procedure of decision-making among couples.
- (3) The household labor is mainly performed by wives
- (4) Wives are mainly responsible for child-rearing and indicate the inconsistent perception of mothering

From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

- (1) Future research might investigate the reason of low family contribution among employed wives

* 본 연구는 93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부산지역 취업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과제의 일부임.

- (2) The egalitarianism (role sharing) in household labor and child rearing might be extended.
- (3) Women might be educated to pursue an independent life.

I. 들어가면서

여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은 그 삶이 가정에 한정되어있지 않는 기혼취업 여성에게는 어느 집단의 여성들보다 심각하고 중요하다.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 일정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여성 즉 가정이 담당해 왔던 의식주 생활기능과 자녀양육의 기능의 불안정함은 도외시될 수 없는 문제이며 이것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족기능의 새로운 완수방안은 결과적으로 특히 여성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며 동시에 맞벌이가족이 여성의 불평등함을 드러내는 가장 유효한 연구과제로 제기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생활태도의 전환방향이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진 구미사회에서는 맞벌이가족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현실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많으며, 맞벌이 상황에서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도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이 홀벌이 가정의 여성에 고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전통적 가내활동과 함께 취업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지만 이 어려움이 가족내적 체계에서나 사회체계에서 수용·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맞벌이 가족의 문제는 여성에게 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만족할 만한 삶의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맞벌이가족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초기에는 부인의 취업으로 인한 양육과 부부갈등에 관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맞벌이가족을 도시의 전형적인 가족형태로 간주하고 그 가족내에서 가족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역할구조와 부부권력관계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나에 관심이 모아져있다(최규련 : 1992).

그리고 가족환경적변수(배우자의 부인취업에 대한 지지, 성역할태도,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맞벌이가족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들을 제기하고 있다. 즉 배우자의 가내활동참여, 자녀양육의 사회화기능의 확대, 어머니역할에 대한 사회적·가정적 지원의 요구 등이 그것이다.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2)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한국가족의 부부관계의 특성'에 의하면 맞벌이가족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족역량을 한국가족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의식이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은 사회적으로는 대체노동력 혹은 저임금노동력 공급, 가정적으로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형성되었기에 기혼취업여성의 가족 즉 맞벌이가족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고, 직계가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수적으로 증가되면서 여성의 가정내 활동과 사회활동에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남편이 가계부양을 책임지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성별분업화가 뚜렷한 산업사회의 대표적 핵가족형태에서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가족기능적인 측면에서나 가족관계적인 면에서 새로운 가족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맞벌이가족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여성·부부·자녀라는 주요 가족구성원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방법은 부산지역 맞벌이가족의 부인(773명)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경제활동·가족활동에 관해 작성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법이다.

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취업주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부부관계의 호혜성 혹은 불평등성은 어느 정도인가?

세째, 가사활동에의 배우자참여정도는 어떠한가?

네째, 자녀양육의 현실과 태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연구내용을 설정할 때 연구자가 응용한 이론적 배경은 여권주의(feminism),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그리고 자원이론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기술은 이기숙(1994, 61-92) 논문을 참고바람). 이 이론들에 근거해 연구자는 기혼취업주부의 가정 즉 맞벌이가족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본관점을 가지고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삶은 그렇지 않은 여성의 삶과는 다를 것이다. 여성억압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능력의 결여에 있으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유지는 여성의 상대적 경제력에 의해 전개된 것이므로 경제력이 많을수록 여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지며 동시에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현대가정의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평등성을 지향하는 관계이다. 확대가족 또는 직계가족의 가족 특성이 父系·父權가족이라고 볼 때 부권 즉 가부장권은 남녀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유지시키는 주요한 기제이다. 그러나 향상된 교육수준과 여성취업률에 의해 배우자선택에서부터 남녀의 종속·지배관계는 탈피되고 있으며 가족형태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부부중심의 맞벌이가족은 가족기능수행에서 지배-종속관계의 유지를 불가능케 해 줄 것이다.

셋째,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기능을 특히 기혼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 수행을 담당할 수 없다. 우리사회의 전통적 여성역할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맞벌이가족에 있어서는 그 분담과 가정 밖 기관이전 즉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사회화기능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도구는 연구내용에 맞게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일부는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0)의 연구에서 참고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이다. 표본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고등학교를 통해 위 조건에 맞는 여성의 자녀들을 통해 수집되었다.

부산의 11개 행정구청에 따라 등급별로 유의적 표집을 하였으며, 유아원 5개원, 유치원 4개원,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로 총 25개 학교에 총 1000부를 배부하였으며 논문자료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773부였다. 조사시기는 1993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였으며 자녀를 통해 설문지를 받은 어머니(조사대상)들이 직접 기입한 후 봉해서 자녀편으로 반환하는 방법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생략하며, <표 13, 14, 15>에 그 속성이 나타나 있다.

IV. 조사결과 및 해석

1.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① 부산지역 맞벌이가족의 부인(여성)들은 스스로의 현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자신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 각각 67.6/100, 71.3/100이라는 점수를 주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69.5/100)가 그들이 측정한 배우자의 삶에 대한 점수(71.1/100)보다 낮다.(<표 1> 참고)

결혼을 통해 남녀가 각각 기대하였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는 결혼의 질측정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혼의 동기과 그 동기의 실현정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들이 그 배우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본 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역할과 가족과의 여가활동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고(<표 2> 참고), 그들 스스로 여성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다고

〈표 1〉 부인들의 결혼생활 평가점수

문항내용	응답	100점에 대한 점수
귀하가 결혼하기전에 기대하였던 결혼생활을 기준으로하여 현재의 결혼생활에서 아래 항목에 각각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준다면?	자신의 생활	69.5
	가정생활	71.3
	사회생활	67.6
	배우자에 대하여	71.1
	자녀에 대하여	76.4

〈표 2〉 배우자에게 가장 바라는 일

문항내용	응답	명(%)*
귀하가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일 2가지를 표해 주십시오.	1. 자녀양육 및 교육	364(47.0)
	2. 가족원간의 여가활동	290(28.1)
	3. 아내와의 대화	217(28.5)
	4. 친척들간의 화목도모	170(22.3)
	5. 집안일하기	129(17.0)
	6. 생활비벌기	123(16.2)
	7. 재산을 늘이는 일	109(14.3)
	8. 아내의 성공과 자아성취를 돕는일	96(12.6)
	9. 원만한 성생활	22(2.9)

생각하는 것으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 집안일하기, 남편의 성공과 자아성취를 돕는 일을 들고 있다(〈표 3〉 참고).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첫째, 그들은 배우자에게는 정서적 역할(여가활동, 대화)을 기대하면서 여성들 자신들은 생활유지를 위한 도구적 역할수행자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과 둘째, 실제적으로 이 자녀양육과 집안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다. 이 벗어나지 못함은 스스로 벗어나서는 안된다라는 의식과 '대체 기능자(혹은 기관)'가 없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사용한 도구적 역할이란 결혼을 역할수행의 측면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즉 생계담당, 가정관리(집안일), 친족관계, 성적역할,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수행을 결혼의 정서적 상태, 친밀감, 만족 등보다 강조하는 것을 뜻한다(Mcnamara & Bahr : 1980).

② 결혼관에 대한 의식을 고찰한 결과, 조사대상

여성들은 전통적 결혼관과 비전통적(혹은 발전적) 결혼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심한 이중가치관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표 4〉 참고). 여기에서 전통적결혼관을 가지고 있음은 성별에 따라 분리된 전통적 역할 그 중에서도 여성의 도구적 역할에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발전적 결혼관이란 사회변화, 여성위치의 변화 등으로 가정내 역할수행 및 남녀관계에 변화가 와야함을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Duvall : 1946).

조사대상 여성들은 "결혼이란 개인대 개인의 관계라기 보다는 남편과 부인의 가족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맞다"에 80.0%가 그렇다· 매우그렇다에 응답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있다"에는 49.3%가 그렇다에 36.1%가 아니대에 응답하고 있어 전통적 확대직계가족의식이 높고 전통적 성역할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혼으로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표 3〉 부인의 역할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문항내용	응답	명(%)*
귀하는 아내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2가지만 골라 표해 주십시오.	1. 자녀양육 및 교육	540(70.8)
	2. 집안일하기	412(54.0)
	3. 남편의 성공 자아성취를 돕는일	294(38.5)
	4. 남편과의 대화	155(20.3)
	5. 친척들간의 화목도모	149(19.5)
	6. 가족원간의 여가활동	91(11.9)
	7. 생활비벌기	35(4.6)
	8. 재산늘이는 일	27(3.5)
	9. 원만한 성생활	21(2.8)

* 총응답자 763명에 대한 백분율임.

〈표 4〉 결혼에 대한 태도

문항내용	응답빈도				
	매우 그렇다	비교적그런 편이다	그저그런 편이다	그렇지않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결혼이란 개인대 개인보다는 남편과 부인의 가족간의 관계로 보는것이 더 맞다.	211(27.6)	401(52.4)	114(14.9)	28(3.7)	10(1.3)
결혼으로 부부중 어느 한 쪽의 잠재력의 개발이 중단된다면 그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146(19.1)	246(32.2)	129(16.9)	181(23.7)	61(8.0)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면 아내는 구태여 자신의 성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87(11.5)	116(15.3)	65(8.6)	263(34.7)	227(29.9)
아무리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더라도 이혼만은 안하는 것이 좋다.	328(43.0)	196(25.7)	56(7.3)	106(13.9)	76(10.0)
가정에서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있다.	68(8.9)	310(40.4)	113(14.7)	204(26.6)	73(9.5)

잠재력 개발이 중단된다면 그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에 51.3%가 그렇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면 아내는 구태여 자신의 성공은 추구할 필요가 없다”에 64.6%가 그렇지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부부생활이 안정되려면 남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좋다”에는 48.9%가 아니다, 36.5%가 그렇다라고 응

답하고 있으며 동시에 결혼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는 대단히 높아 “아무리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더라도 이혼만은 안 하는 것이 좋다”에는 68.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었다(〈표 4〉 참고).

이러한 모순된 결혼관은 배우자에 대한 문항(〈표 1〉 참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발전을 돕는

〈표 5〉 수입·지출분담·재산형성기여정도의 비교

문항내용	아 내	남 편
귀하와 남편의 한달 수입총액 (상여금 등 포함하여)은 얼마입니까?	87.73만원 (아내 : 남편의 비율을 백분율로 고치면 43.3:56.9임)	117.61만원
한달 생활비는 평소에 누구에 의해 지출되고 있습니까?(총액을 100으로 하여 지출되는 양을 분담해서 적어 주십시오.)	48.5 (아내 : 남편의 비율을 백분율로 고치면 57.7:42.3임)	35.5
가정의 재산형성에 금전적으로 각각 얼마나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총액을 100으로 하여 그 기여도를 적어주십시오.)	주택구입시 39.2 주택외 부동산 구입시 40.0	62.3 64.0

* 문항1, 문항2의 총응답자는 662명, 657명이고 문항3의 응답자는 주택구입(전,월세포함) 아내 519명, 남편 578명, 주택외의 부동산구입비 아내 222명, 남편 260명 이었음.

〈표 6〉 집안일 참여비율

문항내용	아 내	남 편
집안일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집안일에 참여하는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61.0	22.0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 참여비율	47.5	21.9
4.5.6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 참여비율	47.5	21.0
국민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자녀 교육 참여	57.6	26.0

*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91가정, 4·5·6세 아동의 경우 115가정, 국민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323가정이었음.

**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빈도는 각각 56명, 66명, 226명이었고 이 참여비율은 기타 가족원(사모·시부·친정모·친정부·고모·이모 등)보다 낮았음.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성생활에 대한 역할과 함께) 가장 하위수준에 있으면서 아내와의 대화는 배우자에게 바라는 세 번째의 주요역할로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즉 대화를 통한 협조, 상호위안, 친밀감에의 기대가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 대화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론해 볼때 '아내'와의 대화를 '아내'의 발전을 위해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사여성들의 결혼생활은 우애적 결혼

관(성생활에 대한 역할과 함께)이 결핍된 수단적 결혼관이 강하며 전통적 가치관과 발전적 가치관이 섞여있는 이중적 결혼관으로 전반적 결혼생활에 혼돈을 겪고 있다.

2. 자원의 분배에서 본 부부관계의 공정성·불공평성

① 조사대상 가정의 부인수입, 부인이 인지하는 재

〈표 7〉 부부간 도움을 주고 받는 정도

문항내용		응답빈도					점수
		매우 그렇다	비교적그런 편이다	그저그런 편이다	그렇지않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을 준다	경제적도움	189(24.5)	392(50.9)	146(19.0)	32(4.2)	10(1.3)	2.1
	일상생활의	212(27.5)	379(49.2)	148(19.2)	29(3.8)	2(0.3)	2.0
	실제적도움						
	정서적도움	121(15.8)	342(44.6)	249(32.5)	46(6.0)	9(1.2)	2.3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경제적도움	144(18.8)	364(47.5)	155(20.2)	78(10.2)	26(3.4)	2.3
	일상생활의	70(9.1)	258(33.6)	254(33.1)	144(18.8)	41(5.3)	2.8
	실제적도움						
	정서적도움	104(15.6)	291(38.0)	232(30.2)	102(13.3)	37(14.8)	2.6

* 점수는 5점 만점에 대한 점수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그렇지않다 즉 도움을 적게 받고, 적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함.

〈표 8〉 부부의사결정태도

문항내용	응답빈도					
	전적으로 남편이결정	비교적 남편이결정	부부공동	비교적 부인이결정	전적으로 부인이결정	만족도 점수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입니다. 귀하의 가정에서 이 일들을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주거문제(주거환경, 이사지역, 집수선 등)	63(8.2)	133(17.3)	460(59.7)	89(11.6)	25(3.2)	2.5
2. 고가품구입(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	40(5.2)	116(15.0)	450(58.4)	126(16.3)	39(5.1)	2.5
3. 일상생활비지출	11(1.4)	48(6.3)	219(28.8)	290(38.2)	192(25.3)	2.7
4. 자녀출산에 관한 일	22(2.9)	37(4.9)	525(69.2)	125(16.5)	50(6.6)	2.2
5. 남편이 직장을 갖거나 바꾸는 일	138(18.0)	265(34.5)	348(45.4)	14(1.8)	2(0.3)	2.8
6. 아내가 직장을 갖거나 바꾸는 일	11(1.4)	40(5.2)	349(45.7)	249(32.6)	115(15.1)	2.6
7. 투자 및 재산증식에 관한 일	58(7.6)	119(15.5)	435(56.6)	125(16.3)	31(4.0)	2.7
8. 자녀교육	13(1.7)	54(7.0)	417(54.2)	231(30.0)	54(7.0)	2.5
9. 시택에 관한 일	25(3.3)	84(10.9)	395(51.4)	213(27.7)	51(6.6)	2.7
10. 친정에 관한 일	15(1.9)	57(7.4)	350(45.5)	271(35.2)	77(10.0)	2.7

* 만족도 점수는 1점에 가까울수록 대단히 만족함이고, 5점에 가까울수록 대단히 불만이다.

산형성의 기여정도, 그리고 가정생활을 위한 제반 지출경비(생활비)의 분담정도를 비교한 <표 5>에 따

르면 부인들은 자신이 버는 돈보다 돈을 쓰는 일을 많이 맡고 있으며(생산기능의 역할인식보다 소비기

〈표 9〉 가사노동분담 태도와 실태

문항 내용	응답	명 (%)
귀하는 주부가 직업을 가진 가정에서 가사노동이 부부공동의 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가정) 할 때, 가사노동의 분담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1. 아내 : 남편의 분담은 8:2가 적당하다.	58(7.6)
	2. 아내 : 남편의 분담은 7:3이 적당하다.	451(59.3)
	3. 아내 : 남편의 분담은 5:5가 적당하다.	252(33.1)
집안일 전체를 100으로 볼 때 부부의 참여비율을 매겨주세요.	1. 아내 61.0(746명) 2. 남편 22.0(590명) * 아내 : 남편의 백분비는 74:26	
변인별 가사노동관	χ^2 값(유의수준)	
1. 연령	14.39(0.0255)	
2. 결혼기간	13.08(0.0109)	
3. 자녀 수	14.82(0.0051)	
4. 학 력	25.41(0.0013)	
5. 직 업	26.18(0.0515)	
6. 생활수준	6.02	

* 연령이 낮을수록 5:5 응답 비율이 높았다.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5:5 응답비율이 높았다. 자녀가 적을수록 5:5 응답비율이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5:5 응답비율이 높았다. 사무직,전문직,전문기술직 순으로 5:5 응답비율이 높았다.

능역할 인식이 높으며) 그 돈이 가정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 자료가 경제적 자원에 관한 것이라면 〈표 7〉은 인적자원의 사용에 관한 부부의 태도이다. 이 표에 따르면 집안일 참여비율은 남편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해서도 남편에 비해 부인의 참여가 높다.

부부관계의 불평등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가정안의 불평등이 곧 가정 밖의 남녀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평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곧 남성들과 공히 가정과 직장에서의 의무·책임을 훌륭히 해내면서 인간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선행조건이다. 박민자(1992, 74)는 부부관계도 각자의 보상을 극대화하고 부담이나 비율은 최소화하려는 교환원리와 부부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가정의 부부는 불평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imball(1983)은 평등한 부부관계란 권리·의무·책임이 분담되고 개방적인 대화·상호존중·우애 등으로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뜻했다. 즉 평등한 부부

란 돈벌이·집안일·육아·의사결정을 분담 내지 융통성있게 할당하는 관계를 가진다. 여기에서 동등한 분담이란 책임감·죄의식·칭찬 등 보상과 부담을 공히 분배함을 의미하며, 특히 가사와 육아를 배우자가 도와주는 것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부를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어떤 도움을 남편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즉 부인들은 스스로 남편에게 일상생활적 도움(2.0/4.0)을 가장 많이 주고 있다고 여기며, 그 다음이 경제적 도움과 정서적 도움이다. 남편으로부터 많이 받는다고 여기는 도움은 경제적 도움(2.3/4.0), 정서적 도움, 일상생활상의 도움 순이다.

② 의사결정구조에서 나타난 부부관계를 고찰하면 〈표 8〉참고) 가정생활의 전반적 영역에 있어 결정권은 부부공동으로 이루어져 표면적으로는 부부공유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 일상생활비지출(63.5%), 아내의 직장일

〈표 10〉 부부의 가사작업별 수행점수

문항	응답	
	아내의 수행점수	남편의 수행점수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하여 귀하와 남편께서 각각 다음의 일을 얼마나 나누어 했는지 표해 주십시오.		
1. 식사준비	3.87	1.82
2. 설 거 지	3.80	1.72
3. 간단한 손세탁	3.54	1.65
4. 세탁기 세탁	3.52	1.71
5. 의류수선	2.98	1.40
6. 다 림 질	3.20	1.79
7. 빨래개기 등	3.63	1.73
8. 옷장정리	3.37	1.46
9. 집안청소	3.68	2.31
10. 청소기사용청소	2.54	1.90
11. 주탁손질	2.53	2.60
12. 화초가꾸기	2.67	2.34
13. 자녀돌보기(음식주기, 목욕 등)	3.68	2.32
14. 자녀돌보기(놀아주기)	3.05	2.56
15. 자녀학습지도	3.04	2.42
16. 자녀 병원.유치원.학원데려가기	2.79	1.20
17. 은행출입	3.28	2.77
18. 관공서(구청.동사무소)출입	2.75	2.82
19. 학교.유치원 행사 참석	2.68	1.76
20. 친인척 행사(생일.혼례.장례 등)참석	3.30	3.22
21. 시장보기(일상용품,식품구입 등)	3.77	2.23
22. 시장보기(의류,가전제품)	3.47	2.43
23. 가계부정리	2.71	1.41

※ 1점에 가까울수록 전혀안한다, 4점에 가까울수록 늘한다이므로 점수가 많을수록 수행도가 높음.

(47.7%), 친정에 관한 일(45.2%), 자녀교육(37.0%), 시댁에 관한 일(34.3%) 등은 전적으로 부인의 결정에 위임되어 있고, 남편의 직장일(52.5%), 주거문제(25.5%), 투자 및 재산증식(남편 23.1%, 아내 20.3%, 공동결정 56.6%)에서는 남편의 결정비율이 높아 사실상 의사결정은 이분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부인들은 부인 혼자 결정한 일과 남편 혼자 결정한 일에 불만족율이 높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일(주거문제, 고가품구입, 자녀출산)에는 만족율이 높아 더욱 더 공동결정방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ood & Wolfe(1960)와 Blair & Lichter(1991)은 가족관계에서 자원과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사노동 등 가정내의 노동을 회피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더 많은 힘을 행사한다고 지적하여 가족관계에서도 권력은 개인이 소유한 자원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하였다.

Spitz(1988)는 가정밖의 노동시장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자유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사노동에서 면제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나 생활계층별로 이 차이는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도 부연했다.

결론적으로 물질자원과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조사대상부인들은 불평등한 관계에 있음이 지적되었으나 크게 불만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내의 활동이 당연히 여성의 몫이므로 상대적인

〈표 11〉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만족도

문항내용	응답	명(%)
남편이 한 가사일의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대단히 만족한다. 2. 조금 만족한다. 3. 그저그렇다. 4. 조금 불만이다. 5. 대단히 불만이다.	111(15.0) 246(33.2) 186(25.1) 140(18.9) 59(8.0)
불만족스러운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응답자수 288명)	1. 남편이 대충 일을 하므로 2. 남편이 한 일을 다시 해야하므로 3. 남편은 하기쉬운 일만 골라한다. 4. 남편은 집안일을 하면서 불평하므로 마음이 불편하다. 5. 기 타	64(22.1) 59(20.4) 31(10.7) 85(29.4) 49(17.0)

〈표 12〉 사회기관의 활용

문항내용	응답				
	총 응답자수	계대로 활용한다	가정내수행을 원칙으로하되 가끔활용한다	가급적 활용하지 않는다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가정안에서 행해지던 많은 일들이 가정밖의 시설·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시설·기관들을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1. 세탁소	743명	158(21.2)	368(49.5)	150(20.2)	67(9.0)
2. 외식을 위한 음식점	744명	57(7.7)	385(51.7)	221(29.7)	81(10.9)
3. 반찬가게 (다 만들어진 반찬, 김치 등)	748명	47(6.3)	166(22.2)	273(36.5)	262(35.0)
4. 파출부	736명	39(5.3)	50(6.8)	72(9.8)	575(78.1)
5. 환자돌보는 이	720명	18(2.5)	45(6.3)	71(9.9)	586(81.4)

불평등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enin & Agostinelli(1988)는 공정한 분배에는 상대적인 공평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사노동참여시간이나 의사결정참여권력의 양은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부부가 상대적인 공평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때 가정의 안정이 아직까지에는 부인들이 지니는 이 상대적 불평등성의 미인지에 의존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즉 성역할론에 의해 상대적 공평성을 아직까지 지니고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힘든 가사와 직장일을 양립하고 있으면서도 불평등성을 덜 느끼게 해 주며 맞벌이가

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요구를 동시에 경감시키는 힘이기도 하다.

3.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실태

가사노동은 가정에서 행해지는 일로, 인간의 힘과 노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돌보는 행위와 자녀출산 및 양육을 포함하는 광의의 재생산개념 노동이다(Murgatroyd : 1985). 그리고 이 가사노동은 여성의 주된 영역이 가정이었기때문에

〈표 13〉 변인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문항내용		응답	
귀하의 노동시간과 집안일하는 시간은 평일의 경우 평균 몇 시간씩입니까?		하루노동시간	9.2(±2.91)
		하루가사노동시간	4.9(±3.5)
변인별가사노동시간		점수	F비(유의수준)
1. 연령	1. 30세 미만	4.41	1.466
	2. 30세 - 39세	4.67	
	3. 40세 - 39세	5.17	
	4. 50세 이상	5.00	
2. 결혼기간	1. 7년 미만	4.15	4.02(0.0183)
	2. 7년 - 14년	4.68	
	3. 15년 이상	5.15	
3. 자녀수	1. 1명	4.33	2.09
	2. 2명	4.85	
	3. 3명 이상	5.12	
4. 종교	1. 없음	4.59	1.061
	2. 기독교	4.56	
	3. 불교	5.14	
	4. 천주교	4.67	
	5. 기타	4.89	
5. 학력	1. 국졸이하	4.94	0.975
	2. 중졸	5.01	
	3. 고졸	5.03	
	4. 전문대 및 대학교 이상	4.45	
6. 직업	1. 전문직	4.40	2.003(0.0437)
	2. 관리직	6.16	
	3. 전문기술직	4.54	
	4. 생산직	4.35	
	5. 사무직	5.19	
	6. 판매직	5.48	
	7. 서비스직	4.90	
	8. 농업,어업,임업,축산업,수산업	6.50	
	9. 기타	4.0	
7. 직업만족도	1. 매우 만족한다	4.56	0.187
	2. 만족한다	4.90	
	3. 그저그렇다	4.77	
	4. 불만족한다	5.03	
	5. 매우 불만족한다	5.00	
8. 생활수준	1. 아주 잘사는 편이다	4.00	4.166(0.0024)
	2. 잘 사는 편이다	4.65	
	3. 그저그렇다	4.77	
	4. 못사는 편이다	4.86	
	5. 아주 못사는 편이다	8.31	

〈표 14〉 어머니 . 아버지 역할에 대한 평가

문항 내용		응답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어머니를 100점이라고 볼 때 귀하는 자신을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69.6(±15.62)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를 100점이라고 볼 때 남편은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66.41(±17.85)	
변인 별 어머니 점수		점수	F비(유의수준)
1. 연령	1. 30세 미만	67.66	1.220
	2. 30세 - 39세	69.66	
	3. 40세 - 39세	69.62	
	4. 50세 이상		
2. 결혼기간	1. 7년 미만	67.78	1.162
	2. 7년 - 14년	69.37	
	3. 15년 이상	70.24	
3. 자녀수	1. 1명	67.90	2.043
	2. 2명	69.14	
	3. 3명 이상	71.08	
4. 종교	1. 없음	69.66	0.563
	2. 기독교	69.01	
	3. 불교	70.28	
	4. 천주교	67.90	
	5. 기타	72.4	
5. 학력	1. 국졸이하	69.86	0.451
	2. 중졸	70.38	
	3. 고졸	68.67	
	4. 전문대 및 대학교 이상	70.21	
6. 직업	1. 전문직	70.49	1.165
	2. 관리직	61.53	
	3. 전문기술직	71.02	
	4. 생산직	68.08	
	5. 사무직	68.87	
	6. 판매직	70.09	
	7. 서비스직	69.46	
	8. 농업.어업.임업.축산업.수산업	67.50	
	9. 기타	75.88	
7. 직업만족도	1. 매우 만족한다	69.75	0.348
	2. 만족한다	70.49	
	3. 그저그렇다	69.49	
	4. 불만족한다	68.14	
	5. 매우 불만족한다	69.35	
8. 생활수준	1. 아주 살사는 편이다	71.80	6.821(0.0000)
	2. 잘 사는 편이다	74.21	
	3. 그저그렇다	70.40	
	4. 못사는 편이다	65.30	
	5. 아주 못사는 편이다	57.50	

〈표 14〉 어머니·아버지 역할에 대한 평가(계속)

변 인 별 아 버 지 점 수		점 수	F비(유의수준)
1. 연 령	1. 30세 미만	63.93	0.806
	2. 30세 - 39세	67.03	
	3. 40세 - 39세	65.98	
	4. 50세 이상	69.70	
2. 결혼기간	1. 7년 미만	64.40	1.131
	2. 7년 - 14년	66.08	
	3. 15년 이상	67.14	
3. 자녀수	1. 1명	65.25	0.863
	2. 2명	67.24	
	3. 3명 이상	65.70	
4. 종 교	1. 없음	66.92	0.549
	2. 기독교	66.44	
	3. 불교	60.40	
	4. 천주교	63.77	
	5. 기타	69.05	
5. 학 령	1. 국졸이하	68.77	0.945
	2. 중졸	66.82	
	3. 고졸	64.82	
	4. 전문대 및 대학교 이상	66.75	
6. 직 업	1. 전문직	67.28	1.576
	2. 관리직	65.38	
	3. 전문기술직	68.53	
	4. 생산직	65.91	
	5. 사무직	67.00	
	6. 판매직	64.31	
	7. 서비스직	63.52	
	8. 농업·어업·임업·축산업·수산업	70.00	
	9. 기 타	76.47	
7. 직업만족도	1. 매우 만족한다	66.07	4.182(0.0024)
	2. 만족한다	67.43	
	3. 그저그렇다	67.46	
	4. 불만족한다	59.01	
	5. 매우 불만족한다	59.50	
8. 생활수준	1. 아주 잘사는 편이다	62.20	1.501
	2. 잘 사는 편이다	69.26	
	3. 그저그렇다	66.69	
	4. 못사는 편이다	63.50	
	5. 아주 못사는 편이다	63.00	

〈표 15〉 이종노동의 어려움

문항내용		응답빈도				
		대단히 어렵다	조금 어렵다	그저 그렇다	별로 어렵지않다	전혀 어렵지않다
직장일을 하면서 집안 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166 (21.8)	447 (58.7)	62 (8.1)	80 (10.5)	7 (0.9)
		점수*			F비(유의수준)	
1. 연령	1. 30세 미만 2. 30세 - 39세 3. 40세 - 39세 4. 50세 이상	2.07 2.09 2.14			0.787	
2. 결혼기간	1. 7년 미만 2. 7년 - 14년 3. 15년 이상	2.01 2.10 2.13			0.993	
3. 자녀수	1. 1명 2. 2명 3. 3명 이상	2.11 2.12 2.08			0.170	
4. 종교	1. 없음 2. 기독교 3. 불교 4. 천주교 5. 기타	2.10 2.05 2.13 2.08			1.001	
5. 학력	1. 국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 및 대학교 이상	2.17 2.15 2.12 2.00			2.093	
6. 직업	1. 전문직 2. 관리직 3. 전문기술직 4. 생산직 5. 사무직 6. 판매직 7. 서비스직 8. 농업.어업.임업.축산업.수산업 9. 기타	2.22 2.00 1.98 2.12 1.89 2.12 2.19 1.75 2.57			1.525	
7. 직업만족도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그저그렇다 4.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2.32 2.12 2.18 1.62 1.80			7.133(0.0000)	
8. 생활수준	1. 아주 잘사는 편이다 2. 잘 사는 편이다 3. 그저그렇다 4. 못사는 편이다 5. 아주 못사는 편이다	2.20 2.23 2.17 1.83 1.87			4.069(0.0029)	

*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대단히 어렵다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전혀 어렵지않다임.

〈표 16〉 자녀양육의 실태

	분 담 자	참여인원수(분담률)
아이를 돌보는 자체의 일을 100으로 놓고 각자가 한 일의 비율을 적어보십시오.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91명)	본 인	84명(47.5) (92.3)
	남 편	56명(21.9) (61.5)
	시댁 시모	30명(45.3) (32.9)
	시부	4명(32.5) (4.4)
	고모	4명(15.0) (4.4)
	친정 친정모	19명(36.1) (20.9)
	친정부	2명(20.0) (2.2)
	이모	6명(38.3) (6.6)
	이웃사람	4명(27.5) (4.4)
	가 정 부	7명(48.6) (7.7)
	탁 아 원	19명(34.2) (20.9)
	기 타	11명(21.8) (12.1)
만 4·5·6세 자녀가 있는 가정 (115명)	본 인	122명(47.5) (97.4)
	남 편	66명(21.0) (57.4)
	시댁 시모	27명(38.5) (23.5)
	시부	4명(27.5) (3.5)
	고모	5명(26.0) (4.3)
	친정 친정모	18명(36.1) (15.7)
	친정부	3명(13.3) (2.6)
	이모	7명(31.4) (6.1)
	이웃사람	7명(51.4) (6.1)
	가 정 부	8명(42.5) (7.0)
	어린이집	33명(49.7) (28.7)
	기 타	17명(39.4) (14.8)
국민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323명)	본 인	322명(57.6) (99.7)
	남 편	226명(26.6) (69.9)
	시댁 시모	76명(33.0) (23.5)
	시부	14명(35.7) (4.3)
	고모	6명(30.0) (1.9)
	친정 친정모	28명(33.2) (8.7)
	친정부	5명(28.0) (1.5)
	이모	13명(43.1) (4.0)
	이웃사람	9명(27.8) (2.8)
	가 정 부	18명(33.3) (5.6)
	학원 등	70명(24.8) (21.7)
	혼자있다	68명(28.7) (21.1)

* 참여인원수 다음의 ()는 직접 참여한다고 기재한 경우들을 더한 평균 값이고, 그 다음의 ()는 해당집 단 가정수에 대한 백분율임.

〈표 17〉 모성관

분 항	응 답	명(%)
	그 렇 다	그렇지 않다
다음을 읽고 자기의 생각과 같은 곳에 표해 주십시오.		
1. 어머니가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은 타고난 선천적 능력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교육받은 결과이다.	415(55.9)	327(44.1)
2. 아이란 반드시 부모가 양육하여야 한다.	439(58.1)	317(41.9)
3. 아이는 부모보다 잘 훈련된 보모나 교사가 더 나올 수 있다.	209(28.1)	536(71.9)
4. 아이를 남(친척포함)이나 시설에 맡기는 것에 나는 죄의식을 느낀다.	400(53.8)	343(46.2)
5. 여성의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이 필요하다.	651(87.5)	93(12.5)
6. 아이를 키우는 데 아버지의 참여도 확대되어야 한다.	727(97.1)	22(2.9)

여성이 전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가족생계기능이 증가됨과 동시에 가사노동의 부분적 경감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시대적 추세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내의 조건 즉 취업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효재, 지은희, 1988).

“주부가 직업을 가진 가정에서 가사노동이 부부공동의 일이라면 가사노동의 분담율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내 대 남편의 분담이 7:3이 적당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59.3%). 그 다음이 5:5로 33.1%이었다. 5:5의 분담주장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결혼기간 7년 미만에서는 42.5%, 8년에서 13년 집단에서는 33.9%, 그 이상집단에서는 30.1%), 직업에 있어서는 사무직·전문직·전문기술직(50.0%, 37.4%, 35.6%)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주장되었다(〈표 9〉 참고).

실제 가사노동참여정도를 조사한 〈표 9〉에 따르면 아내:남편의 비율이 6.1:2.2로 얻어졌으며 이를 100점 표준점수로 환산하면 74:26으로 나타나 위 가사노동관과 일치한다. 이 가사노동을 23 종류의 가사작업별로 아내와 남편 수행점수를 얻은 〈표 10〉에

따르면, 부인들은 그 작업중 작업을 제외하고 식사준비, 설거지, 시장보기, 자녀돌보기(음식주기·목욕 등), 집안청소, 빨래개기, 세탁의 수행이 높다. 남편들은 부인보다 수행점수가 높은 작업은 친인척행사(생일, 혼례, 장례 등) 참여, 은행 및 관공서출입이며 남편들이 가끔 수행한다는 수준에서 응답한 가사작업은 친인척행사참여, 은행 및 관공서출입, 주택손질, 자녀돌보기(놀아주기 등), 자녀학습지도, 화초가꾸기, 집안청소, 시장보기 순이었다.

남편의 가사일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표 11〉 참고)는 만족한다(48.2%), 그저그렇다(25.1%), 불만족이다(26.9%)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 가정행동 변인별로 차이는 없었다. 불만족스러운 경우, 그 이유는 “남편은 집안일을 하면서 불평하므로 마음이 불편하다”(29.4%), “남편이 일을 대충하므로”(22.1%), “남편이 한 일을 다시 해야 되므로”(20.4%)로 지적되었다.

가사노동 경감을 위한 사회기관 활용에 대해서는(〈표 12〉 참고) 가정내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가끔 활용하는 곳은 세탁소(70.7%), 외식을 위한 음식점(59.4%), 반찬가게(28.5%)로 나타났고, 파출부·환자돌보는 이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가사노동시간은 4.9시간(편차 3.5)으로 나타나 편차가 심하였다. 이를 가족환경변인별로 고찰한 결과(〈표 13〉 참고) 직업·생활정도만이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즉 농업·임업 등에 종사하는 부인들의 가사노동시간(6.5시간)이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관리직(6.2시간), 판매직(5.5시간)순이었다.

전문직(4.41시간), 전문기술직(4.54시간)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활정도에서는 못 산다고 평가한 집단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스스로 잘 사는 편이라고 평가한 집단보다 높았다.

결론적으로 본 조사대상 가정의 아내 :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74 : 26이며 가사노동에의 남편참여가 낮으며, 남편의 가사일에 대해 부인들은 비교적 만족하며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가사노동시간은 결혼기간, 직업군과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결혼기간이 길수록, 농업·임업·어업과 관리직·판매직에 종사할수록 전문직·전문기술직·생산직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높게 나타났다(〈표 13〉 참고).

Cowan(1983)은 산업화가 가정생활을 변화시키고 가사노동형태에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실제 여성의 가사노동량은 크게 경감되지 못하였고 예나 지금이나 여성은 가사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가사가 여성의 주 임무라고 여기는 성역할론과 남성의 저항에 있다(Hochschild : 1989). 그러나 부부간 성역할이테오르기가 평등주의에 가까울수록, 여성의 경제력이 클수록 그 배우자의 가사노동분담은 커지고 있으며 하류층 부부의 경우에는 전통적 이데오르기의 보유가 높아 가사노동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Barnett & Baruch : 1987).

Coleman(1991)은 아내수입의 필요성과 경제력보다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오르기가 가사노동분담에 더 큰 작용을 한다고 하였으며, 부인의 경제력이 높은 가정에서의 부인분담률의 저하는 실제로 가사노동을 부부가 아닌 파출부 등에게 위임시킨 결과임을 고려할 때 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의 실제적 경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배우자의 상징적 평등주의 행동(쉬운일만 도와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에 가린 실제의 가사노동의 참여 모습 등은 계속 연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자녀양육 실태

자녀는 부부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다. 자녀가 출생됨으로 가족구조적인 면에서 부부양자관계는 부모자녀라는 삼자관계로 바뀌게 되고 부부상호작용형태가 부모역할의 개입으로 재조직되고 부부역할에 전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자녀는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준다.

Miller & Sollie(1980)는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역할수행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는 공동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욱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 인간적으로 성숙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Glenn & Lanahn(1982)은 부모기로의 역할전환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자녀는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특히 부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어 여성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자녀가 부모에게 긍정적 효과만을 주는 체계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자녀양육을 여성의 취업유무별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자녀양육에 더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의 대리양육의 문제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Mckim : 1987, Venture : 1987). 한국 중산층취업모의 경우에는 시댁과 친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실제 육체적 부담은 크게 받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가장 큰 가족문제로 자녀양육을 지적하고 있다(이숙현 : 1990).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에는 중산층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닌다고 지적되고 있다(박숙자 : 1992, 유희정 : 1992). 박숙자(1992)의 0~1세의 첫자녀돌보기에 나타난 가족역할분담실태에 따르면 실제 자녀양육 부담율이 전업주부 6.74/10, 취업모 5.29/10로 나타나 있고, 취업모의 경우 전업주부(친정은 0.93/10, 시댁은 0.67/10)보다 친정부모의 도움(1.50/10)과 시부모의 도움(1.41/10)을 많이 받고 있으며, 남편의 역할은 전업

주부남편(1.19/10)보다 취업주부남편(1.01/10)에서 낮게 나타났다. 탁아원 등 사용실태는 부인취업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그 부담비율도 극히 낮았다(전업주부 0.02/10, 취업모 0.06/10).

본 조사대상 부인들은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한 평가(69.6/100)가 남편의 아버지로서의 평가(66.4/100)보다 높게 나타나서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의 역할이 그 배우자보다 많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자신의 어머니점수는 결혼기간, 자녀수, 연령, 학력, 직업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생활정도 변인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표 15> 참고). 스스로의 생활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어머니점수는 57.5/100이었으며 높다고 응답한 집단은 71.8/100, 74.2/100이었다. 아버지역할점수는 변인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양육에의 어려움은 학력, 생활수준별로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표 15> 참고).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어려움이 더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차적 방안이 육아·교육기능의 이전 즉 유아원(어린이집, 탁아소 포함), 유치원, 미취학아동대상학원의 이용으로 볼 때 그 활용도는 높지 않다(<표 16> 참고).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탁아원 사용율은 20.9%이고, 4,5,6세 아동의 경우에는 28.7%, 국민학생자녀의 가정은 학원 등에 자녀돌봄을 의존하는 율은 21.7%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자녀양육의 문제는 실제 누가 어린자녀들을 돌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어 가정내 역할분담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의 탁아정책 즉 탁아기관의 증대와 활성화로 해결해 가야되며 저소득층부모의 상대적 빈곤감이 자녀양육과 교육을 통해 더욱 높게 투사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그들의 희망들을 사회발전의 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의 역량이 요구된다.

자녀양육과 함께 어머니들의 모성관을 검토해 볼 때 취업모의 모성관은 모성의 1차적 책임은 여성(어머니)에게 있다고 믿으며 아버지나 시설 등은 더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되 2차적 책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들은 '아이란 부모보다 더 잘 훈련된 보모나 교사가 나올 수 있다'에 71.9%가 그렇지 않

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아이란 반드시 어머니가 양육하여야 한다'에 그렇다(58.1%), 그렇지 않다(41.9%)가 비슷하게 나타나 자녀양육의 가정 혹은 어머니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기관 활용이 낮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 취업모는 자녀를 '남(친척포함)이나 시설에 맡기는 것에 죄의식을 느낀다'에도 53.8%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녀양육의 근원적 해결이 이 모성관의 변화없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와 함께 모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주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 참여의 확대(97.1%)와 시설의 확충(87.5%)등도 요구하고 있어 자녀양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표 17> 참고).

서동인(1992)은 서울시 맞벌이가정의 취업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식이 실제 자녀관리상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실제 그들은 70%가 자녀를 잘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하는 엄마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가 긍정적인 면도 인정하고 있음) 하나의 편견으로 이미 내면화된 결과라고 보았다.

Ruddick(1982, 122)은 '남성과 여성이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자녀양육의 진 측면을 공유하는 것은 긍정할 뿐 아니라 매우 도덕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부모의 책임있고 동등한 자녀양육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녀를 돌보지 않는 아버지의 특권이 사적(가정적)인 간관계의 혼란을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가정(사적)-사회(공적)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점은 가정과 사회의 균형된 발전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권력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즉 가정내의 권력드라마가 지속적으로 한 개인의 정신적 대인적 드라마로 반복되어 유지된다고 볼 때 가정내에서의 자녀양육에의 회피, 그러면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권력은 잘못된 착취-피착취개념을 가지게 해주기때문에 근본적으로 현대가정이 변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점임을 설파하고 있

다. 동시에 Ruddick(1982, 108)은 어머니역할(모성)이란 천성적, 생리적역할이기보다는 선택된 그리고 사회가 준 역할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 일을 떠 맡고 있는 것은 사회가 여성에게 준 보상이며 길들여진 의식의 결과라고 보았다. 특히 이 보상과 의식이 경제활동에서 남성과 차별적 대우를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여성억압과 결합되어 '아이를 잘 키우는 어머니'가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정말 바르게 키우는 어머니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자녀양육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 일이 자신을 억압하는 일임을 믿는 어머니에게는 이 역할이 갈등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양육과 교육은 가정에 전적으로 의존되고 있고 어머니들의 책임의식과 실제 수행은 높으며, 조사대상 취업모들은 자녀양육의 여성전담 의식과 양육의 분담(남편과 시설에의)요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성관을 지니고 있다.

V. 맺는말

부산지역 맞벌이가족의 부인 773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결혼생활, 부부관계,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문제점을 고찰한 본 논문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들이 인식한 그들의 결혼생활은 우애적 결혼관이 결핍된 수단적 결혼관이 강하며, 전통적 가치관과 발전적 가치관이 섞여있는 이중적 결혼관을 나타내어 전반적 결혼생활에서 혼돈을 겪고 있다.

둘째, 가정의 인적·물적자원분배에서는 부부간의 불평등함이 나타나고 자신들의 가정의 인적·물적 기여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구조에서는 부부공동결정인 역할공유의식이 높으나 실제 결정대상은 부부에게 이분화되어 있다.

셋째, 가사노동의 가정내 수행과 여성중심수행이 분명히 나타났다. 가사노동분담은 의식과 실제 수행에 있어 동일하게 아내 : 남편이 약 7 : 3으로 나타나 부인의 가사노동수행이 높으며 남편의 가사노동 참

여가 낮지만 그 참여에 대한 부인들의 만족수준은 비교적 높으며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특히 직업과 생활수준에 따라 가사노동수행시간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네째, 자녀양육은 가정내 의존 특히 어머니에게 의존되어 있으며 모순된 모성관을 나타냈다. 즉 조사대상부인들의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실제 수행력은 높으며 동시에 양육의 분담요구(남편과 시설에의)도 강하다.

본 논문을 정리하면서 가족내적 체계와 사회체계의 측면에서 두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가족의 여성·부부·자녀문제는 가정만의 해결로 맡겨둘 수는 없다. 그러나 우선 건강한 가족을 꾸려나가야 된다는 필연성에 맞추어 가족구성원 각자의 우호적 삶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의 부인취업에 대한 심리적,실제적 지원이 더 요구되며 배우자의 성역할이데오르기의 변화 즉 여성의 삶에 있어서 여성이 한 인간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가족생활에의 참여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직업생활과 함께 가정생활을 보다 능동적으로 조화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이 의지는 보다 발전적 성역할 교육을 통해 꾸준히 단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는 더욱 가사노동의 사회화기능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자녀양육의 집단화도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히 자녀양육의 전문가 교육의 수준과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이에 맞는 정책의 완비 - 저소득층 무료탁아, 유아원확대, 유아원교육의 질적 향상, 타인의 양육이 수용될 수 있는 양질의 보모교육, 출산휴가의 확대 - 등이 시급히 갖추어져야 한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심리적 괴로움을 느꼈다. 집단적 가치체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삶이 집단에 의존되어 있고 따라서 희생적 이중적 열등적 삶의 특성을 지적하기는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헌신,배려감등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타인(가족)을 포함하는 삶에 익숙

해져 있고 또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이 껴안고 싸는 삶이 가정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한 분석과 비판의 과정없이 여성의 배려, 보살핌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이르다라는 판단도 가졌다. 특히 자녀양육에 있어서 이 양육이 여성의 모성에 의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양육에 대한 다른 사회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특히 인간의 양육과 보살핌이라는 과제를 계속 여성의 몫으로만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여성의 일(가정과 직장에서의)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여성의 과제는 아니다하더라도 모성의 여성적 특성이 계속 주장되어야 할 것인가는 계속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연구가 남성과 대비시켜 여성의 역할함이나 불공평만을 강조하는 것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하여 여성의 인간다운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문제는 사회지원체계 즉 제도적 정책적 대안의 완비(김양희 외 5인의 연구(1992)에 따르면 가족체계차원과 사회정책차원에서의 맞벌이 가족문제에 대한 많은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하다)가 성숙해지면 자연히 남성과 화합하여 안정을 추구하려는 논의가 이어지리라고 기대하며 이 연구를 끝맺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양희. 1993. "맞벌이가족을 위한 정책", 한국가족학회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심포지움자료, 131-169.
- 2) 김양희외 5인. 1992.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권3호.
- 3) 박민자. 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학회,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71-104.
- 4) 박숙자. 1992. "첫자녀 출산과 부부관계의 변화", 여성한국사회학회,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141-179.
- 5) 박충선. 1992. "맞벌이가족의 출현배경", 한국가족학회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심포지움자료, 3-30.
- 6) 서동인. 1992. "맞벌이가족의 부모 자녀관계", 한국가족학회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심포지움자료, 67-102.
- 7) 신화용·조병은. 1993. "맞벌이가족의 성인자녀·노모관계", 한국가족학회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심포지움자료, 103-126.
- 8) 여성한국사회학회(편). 1992.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 9) 여성한국사회학회(편). 1990.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10) 유희정. 1992.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학회,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182-213.
- 11) 이기숙. 1994. "맞벌이 가족의 여성, 부부, 그리고 자녀", 여성연구논집 5집,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소.
- 12) 이숙현. 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한국가족학회, 가족학논집 2집, 1-27.
- 13) 이효재·지은희. 1988. "한국노동자계급가족의 생활실태: 노동력재생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2집, 69-97.
- 14) 최규린. 1992. "맞벌이가족의 부부관계", 한국가족학회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심포지움자료, 31-66.
- 15) 최재석. 1987.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16) 한국사회사연구회. 1990.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 문학과 지성.
- 17) 한남재. 1985. 한국도시가족연구, 일지사.
- 18) Benin, Mary H. & Joan Agostinelli. 1988. "Husband and wives'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labor", JMF 50-1, 349-361.
- 19) Blair, Sampson L. & Daniel T. Lichter. 1991. "Measuring the dimension of household labor" J.

- of Family Issues, 12-1, 91-113.
- 20) Blood, R.O. & R.M. Wolfe. 1960. "Husbands and wives :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 N.Y. : Free Press.
- 21) Duvall, Evelyn Millis. 1946. "Conceptions of parenthood", James M. Henslin(ed.),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Y. : The Free Press, 1980, 330-339.
- 22) Goode, W.J. 1963. 「World revolution and tamig pattern」, Free Press.
- 23) Homans, G. 1961.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 N.Y. : Harcour Brace Jovanovich.
- 24) Kimball, 1983. 「평등한부부」,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8).
- 25) Scanzoni, E.D. & J. Scanzoni. 1988. 「Men, women and change : a sociology of marriage and family」, N.Y. : McGraw-Hill Book Co.
- 26) Spitz, Glenna. 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JMF, 50-2, 595-618.
- 27) Thompson, L. & A. J. Walker. 1991. 「Gender in families :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CFR, 79-101.